

5·18유족회 नेपाल 오지마을에 학교 짓는다

대지진에 무너져 내린 校舍 재건...20일째 준공 사업비 광주시 지원·모금 "5월 나눔정신 실천"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가 नेपाल 오지 마을을 찾아가 학교를 짓고 있다. 올 봄 발생한 대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नेपाल 오지 마을의 학교를 새롭게 건립하는 것으로, 5·18 유족회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첫 봉사활동이다.

80년 5월 계엄군이 휘두른 총칼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नेपाल 주민들에게 학교를 지어 희망을 안기는 것은 5·18 정신의 한 축인 '나눔 정신'의 실천 사례이기도 하다.

5·18 유족회가 학교 재건 작업에 나선 곳은 नेपाल 수도 카트만두에서 자동차로 2시간 떨어진 누야코트 지역의 마단푸어라는 산골 마을. 지진이 일어나기 전 마을에는 타라스쿨이라는 주민들이 세운 학교가 있었다. 유치원, 초등학교를 한데 모은 학교로 학생 90여명이 교실 6칸에서 수업을 받았다. 교직원의 거주도 별도 건물에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नेपाल을 강타한 지진으로 교실과 교직원 기숙사도 힘없이 주저앉았다. 학생들의 집도, 마을과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도 무너져내렸지만 지진 발생 6개월이 지난 이날까지도 복구는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골마을 주민들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양철판으로 벽과 지붕을 엮어 배움터를 개설했다. 폐허로 변한 마을에서 변변한 학업 도구나 교재도 없지만 학생들과 교사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는 진지하다고 한다. 언제 지진이 일어났느냐는 표정으로 국어·영

어·예체능 수업 등 모든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5·18 유족회는 지난달 28일 학교 재건 사업의 선발대로 정수만 전 유족회장을 보내 현지 주민들과 함께 학교를 재건하고 있다. 총 사업비 2000만원은 광주시의 지원과 유족회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한정된 예산 탓에 본래 6칸이던 교실을 2칸만 복구할 예정이었으나 여비를 아끼고 유족회원들의 자비를 더 보태 4칸을 지을 계획이다. 건물의 기둥은 철

■ 5·18 유족회 नेपाल 학교 재건 위치도



근 파이프, 벽면은 콘크리트, 지붕은 합판과 합석을 이용해서 건립 중인 60평짜리 학교는 오는 20일째 제 모습을 갖춰 준공 예정이다.

정수식 유족회장 등 회원 대역서 명도 오는 14일 주민들에게 건넬 현우과 새우

등 300여벌을 들고 नेपाल 현지로 날아간다. 영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구사하는 주민들과 5·18 광주민화운동을 공유하기 위해 영문으로 된 관련 서적도 챙겨간다. 회원들은 닷새가량 페인트칠 등 마감작업을 돕고 학교 건립 공사가 끝나면 주민들과 함께 조출한 준공식도 하기로 했다.

정수만 전 회장은 "이번 기회는 नेपाल 오지 마을에 5월 정신의 한 축인 나눔 정신을 심고 실천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한정된 예산 때문에 학용품, 학교용 집기 등을 완벽하게 선별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돕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 2일 नेपाल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누야코트지역 산골 오지 마을인 마단푸어에서 학생들이 임시로 마련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5·18 유족회는 지난 4월 지진으로 무너져내린 학교 부지에 새 학교를 짓고 있다. (5·18 유족회 제공)

광주시, 교통연수원 불법임대 계약 해지 명령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 특별보훈사에 연수원 로비를 불법 임대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11월4일자 6면)과 관련, 광주시가 연수원 측에 계약해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연수원이 교육생들의 휴식 시설로 이용되어야 할 로비 공간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해지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연수원은 지난 1월 한 화재보험회사와 대강당 앞 로비 10여㎡를 연간 1200만원을 받고 1년간 임대해주는 계약을 체결

했다. 광주시 확인 결과 지난 3월부터는 오일 판매업자에게 500만원을 받고 주차장 일부 공간을 임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와 오일 판매업자는 교통 운수 종사자 신규 및 보수교육이 열리는 날이면 연수원 대강당 로비에서 보험상품을 홍보·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수원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와 오일 판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산정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환경연, 수은 집단중독 하남산단 남영전구 대표 고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근로자 집단 수은 중독 사고를 일으킨 광주 하남산단 소재의 (주)남영전구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환경연은 이날 자료를 내고 "남영전구 대표 김철주씨는 지난 3월과 4월 공장 일부를 철거하는 작업 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은폐해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켰다"며 "철거 작업 뒤에는 공장 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매립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남영전구가 맹독성 유독물질인 수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

았을 뿐 아니라 그 때문에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노동자와 환경보호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수은을 다루는 공정이 이 업체에서 진행됐지만 한 차례라도 관련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얼마나 많은 폐수인이 불법적으로 매립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관계 당국의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오후 2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땅 강제수용 불만...여수시청사 차량 돌진

차량 전소...고물상 부부 화상

여수시가 추진한 택지개발에 자신의 부지가 강제 수용된 것에 불만을 품은 50대 고물상 부부가 가스통을 실은 차량을 시청 건물로 돌진해 차량은 불에 타고 부부는 중상을 입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지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서모(58)씨와 부인 오모(52)씨가 차량에 탑승한 채 시청 건물로 돌진, 차량에 불이 붙어 전소됐다.

이 사고로 서씨 부부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여수시청 직원들에 의해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씨는 돌진하기 전에 '죽겠다'며 차량 안에 시너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럭에는 가스통 2개가 실려 있었다.

이들 부부는 최근까지 웅천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고물상을 운영해 왔으나,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부지가 강제 수용되면서 보상문제 등으로 여수시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형호기자 chkim@

조례 만들면 뭐하나...광주시 산하기관 고졸자 채용 외면

12곳중 1곳만 채용계획 세워 올 채용 3곳중 2곳 1명씩 뽑아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대상 기관 상당수가 고교 졸업자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등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시는 조례 시행 이후 석 달이 지난 뒤에야 대상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느장 대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정

원 30명 이상인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광주시 사무 수탁기관, 광주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공기업을 매년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을 세워 신규채용시 채용인원의 5% 이상 고교 졸업자를 우선 뽑아야 한다. 또 고용촉진 대책에는 채용 뿐만 아니라 고교 졸업자 일자리박람회 등 고용촉진 사업, 재정지원,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등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가 지난 9월 말까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등 12곳의 '2015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광주도시공사 1곳에 불과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수완에너지㈜, 김대중컨벤션센터, 남도장학회,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복지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환경공단, 광주시교통약자지원센터 등 11개 기관은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조례에 따라 고교 졸업자를 채용한 기관은 3곳이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올 채용 인원 13명 중 1명(7.7%),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8명 중 1명(5.6%), 광주시교통약자지원센터는 7명 중 2명(28.6%)의 고교 졸업자를 채용했다. 반면, 광주복지재단은 10월1일 13명의

신규 직원을 뽑으면서 고교 졸업자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협조 공문을 일찍 발송하지 않아 대상 기관이 대책을 수립하기 촉박한 것도 있었다"며 "최근 각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지방공기업 평가시 고교 졸업자 채용실적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신용보증재단에는 고졸 재직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고졸 재직자 비율은 각각 4.42%와 3.27%에 불과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빌린 돈 400만원 갚은 후 다시 훔쳐 달아난 50대 경찰서형



○... '빌려준 돈을 갚은 뒤 더 큰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갚은 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서형.

○...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양모(56)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동구 소재동 이모(여·74)씨의 식당에서 3년 전 빌린 돈 400만원을 갚은 뒤 이씨가 잠

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다시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경찰 조사결과 양씨와 이씨는 수년 전부터 금전 거래를 해왔는데, 양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400만원을 갚으면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보증인을 더 데려오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횡감에 돈을 훔쳤다"라며 때늦은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담보 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임대보증금 대출

감정가 대비 70% 가능

최대 2,000만원 가능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 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p>본점</p> <p>062)525-2770~2</p> <p>(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p>용주점</p> <p>062)525-2774</p> <p>(용봉동 주민센터 앞)</p>	<p>삼각점</p> <p>062)525-2776</p> <p>(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p>
--	---	---